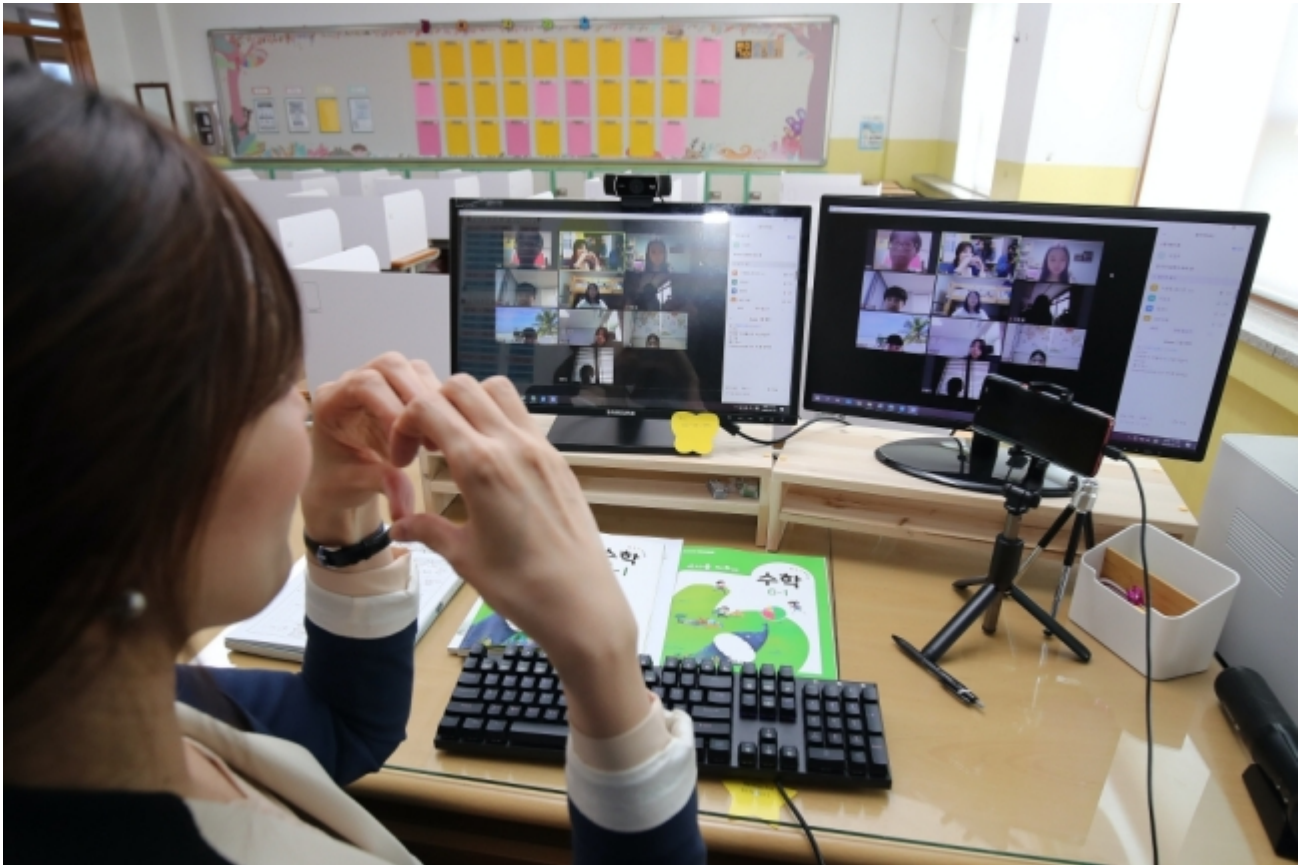


MoneyS

[잇츠IT] '온라인 개학' 진통 계속... 서버 늘려도 접속 불안 여전

기사입력 2020-04-18 06:37



지난 16일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한 교사가 화면 속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학습관리시스템(LMS)은 간헐적으로 접속 불가 현상에 빠졌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으로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 85만5000여명이 수업을 시작했다. 이어 일주일 뒤인 16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12만7000명이 2차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전국 397만여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돌입한 셈이다.

온라인 개학 시작부터 '빠걱'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만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교육부는 7일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의 수용인원을 각각 300만 명씩 확충했다"며 "원활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일선학교에 동영상화질을 SD급(480p)으로 설정해 업로드 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차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9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접속 오류현상이 발생했다. 당황한 학생들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교사에게 출석인증을 받는 상황도 발생했다.



온라인 클래스 접속 지연안내

현재 이용자 증가로 인해 초등, 중학 온라인클래스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해주세요.

접속이 지연되는 동안 EBS 초등, 중학, 고교 사이트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용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MoneyS

지난 9일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공지문. 이날 온라인 클래스는 약 1시간동안 접속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머니S DB

당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로그인통합인증시스템(SSO)가 병목현상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라면서 "서버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SSO는 하나의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연관된 다른 사이트에서 따로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육부는 9일 오후 "SSO 문제는 해결됐다. 해당 문제가 재발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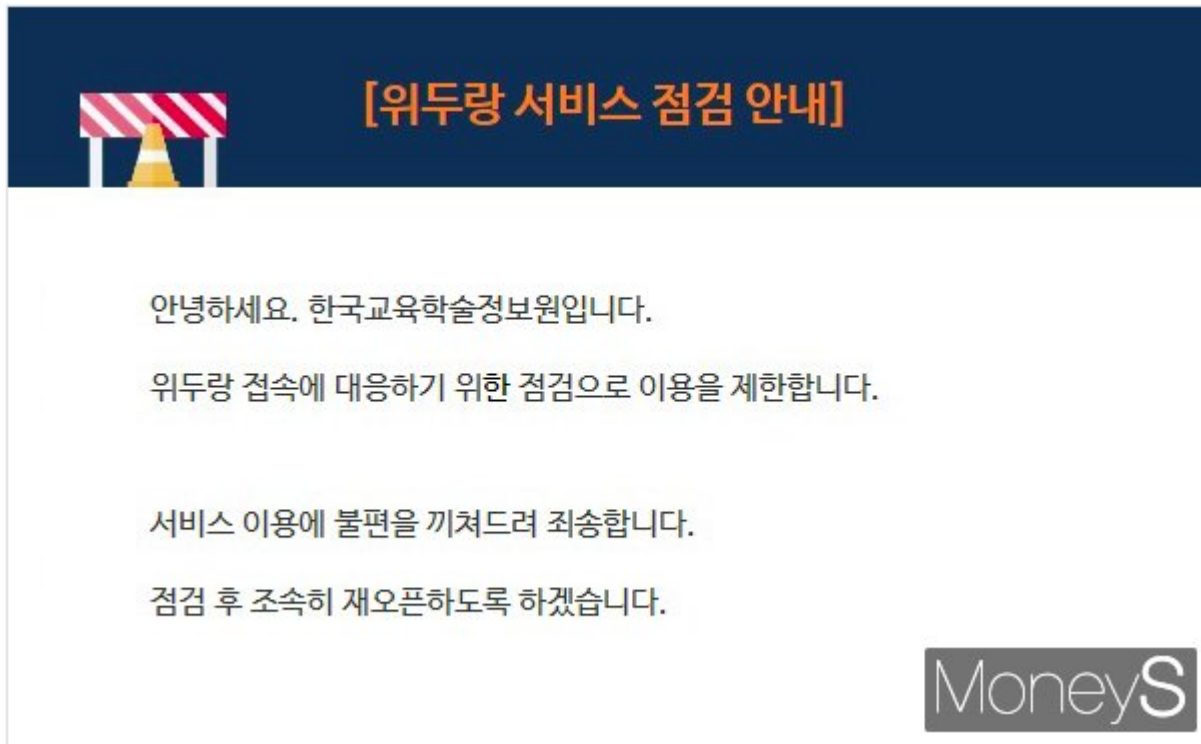
하지만 13일과 14일에도 문제는 발생했다.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에는 일부지역에서 학생들이 로그인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급기야 일부 학급에서는 학생들에게 "15일은 휴일이니 수업을 그날 들으라"고 전달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접속 불가 사태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로그인 방식을 간소화하고 중앙집중방식이 아닌 개별 학교에서 처리하는 로컬 접속방식을 도입했다. 김광범 EBS 학교교육본부장은 "온라인 클래스는 원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하나의 게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며 "게이트를 100

개로 확대해 로그인을 원활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용자 급증으로 병목현상... “안정성 우선해야”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접속불가 상황은 16일 2차 온라인 개학 때도 이어졌다. 이날은 전날 있었던 총선 여파로 학생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접속했음에도 서버 불안 현상이 계속됐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위두랑'은 아예 16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진은 위두랑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 /사진=머니S DB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e학습터에서 접속이 지연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출석체크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LMS인 위두랑은 아예 이날 서비스를 중단했다. 위두랑은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긴급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도 교육부가 총 12개 권역별로 서버를 추가 구축해 총 570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고 설명한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계속되는 접속불가 현상에 통신업계 전문가는 “접속인원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 입출력도 같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자원을 100% 운영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목현상 구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

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mt.co.kr

- ▶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영상
- ▶ 21대 총선 '생생'한 뉴스 ▶ 코로나19 속보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17&aid=0000532767>
